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힘내라
대한민국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5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 장 김상진(044-201-2171), 사무관 노승호(2172) / 제공일: 5월 22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코로나19 위기, 기능성식품 수출에서 길을 찾다

- 민·관 합동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구성 -

- 일본·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삼 등의 과학적 근거 구축 추진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코로나19로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, 민·관 합동으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.
- 인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능성 농산물과 식품이 일본·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정보 조사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.
- 5월 22일 수출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 마련, 해외 제도정보의 신속한 현행화와 전문적인 자문, 건강기능식품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.
-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식품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, 식품업계의 기능성식품 수출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.
- 식품수출·제조업체 1,40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결과, 기능성식품 수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80%,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수는 90%에 달했다.
- * 한국리서치 온라인 조사결과(3.11.~4.22.) : (수출의향) 수출의향 있음 80.6%, (기능성식품 수출지원사업 필요성) 필요함 93.8%

□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능성 식품업계는 과학적인 근거자료 부족과 해외 제도 등록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○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수요조사에서도 '해외 기능성 검증 및 임상시험 지원'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, '해외 기능성 식품 등록 자문'이 뒤를 이었다.

*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: (도입 필요 정책) 해외기능성 검증 및 임상시험 지원 29.5%, 해외 기능성식품 등록 컨설팅 20.9%, 전문 바이어(벤더) 알선 19.4%,

□ 농식품부는 관계부처·기관 합동으로 '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'을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,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보조사 등을 추진한다.

기 관 명	담당 역할
농식품부	· 사업총괄(기본계획 수립, 모니터링, 예산집행, 성과점검)
식약처	·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, 정보제공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· 국산 기능성 원료의 해외용 연구자료(저작권 aT보유) 구축 · 성분분석, 해외임상시험(필요시) · 수입업체 대상 해외 기능성 등록(신고) 지원 · 특화 마케팅 추진(전문 박람회, 판촉 등)
한국식품연구원	· 국산 소재 기능성 식품 개발, 과학적 근거 자료 제공 등 · 해외 연구진 대상 연구리뷰 및 임상시험 과정 자문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	
농촌진흥청	
수출협의회	· 기능성식품 제조 및 해외 등록, 시장 개척 등

□ 인삼류에 대해 중국·일본 등 주력시장 온라인몰 신규 입점을 지원하고, 베트남 등 신시장에서 온·오프라인 소비자 판촉과 우수성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.

□ 해외 시장에서 기능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인삼·누에(곤충식품)와 각종 기능성 성분*에 대해 과학적 근거 구축을 지원한다.

* 난소화성덱스트린(혈당치 상승 억제효과), GABA(혈압 개선), DHA(중성 지방 저하), 프로바이오틱스 등 10종

-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, 현지에서 관련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해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만들고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.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담팀(수출환경대응 TF)을 구성하여 수출업계 상담과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지원한다.
-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국·일본·EU의 기능성식품 제도·정책에 대한 정보를 심층 조사하여 수출업계에 공유하고, 현지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도록 돕는다.
-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“코로나19 이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,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며,
- “일본·미국 등 건강기능식품이 발달한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제도 등록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